

보도일시 (인터넷) 2023. 6. 21.(수) 11:00,
(지면) 2023. 6. 22.(목) 조간

배포 2023. 6. 21.(수) 06:00

군산내항, 재해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 총 335억 원 투입하여 1.5km 구간에 이르는 재해방지시설 마련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침수 등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6월 22일(목)부터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외곽 및 방재시설을 보강하는 '재해 취약지구 정비계획(2011~2030)'을 추진 중이며, 이 계획에 따라 군산내항 재해 취약구간을 정비하기 위해 이번 공사를 진행한다. 이번 정비사업은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올해 3월 공고를 통해 선정된 우탑건설(주) 등 3개사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는다.

이번 공사에서는 2025년까지 총 335억 원을 투입하여 동백대교 남단부터 총 1.5km 길이의 구간에 투명 방호벽, 승강식 방호벽, 차수관 등 다양한 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이 중 군산내항 호안* 구간은 석축을 원형 복구하면서 침수방지기능이 있는 방재언덕을 조성하여 약 1만 5천㎡의 상부 부지를 친수 공원**으로 만들고, 일부 구간에는 보행 전망데크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1930년에 축조한 후 2018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석축형태의 호안

** 주요 도입시설 : 조경식재 약 12,000주, 파고라(정자) 9개, 계단식 벤치, 산책로 조성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군산내항은 근대문화유산과 항만이 공존하는 지역명소로, 이번 공사를 통해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	책임자	과 장	전충남 (044-200-5950)
		담당자	사무관	권영민 (044-200-5972)

참고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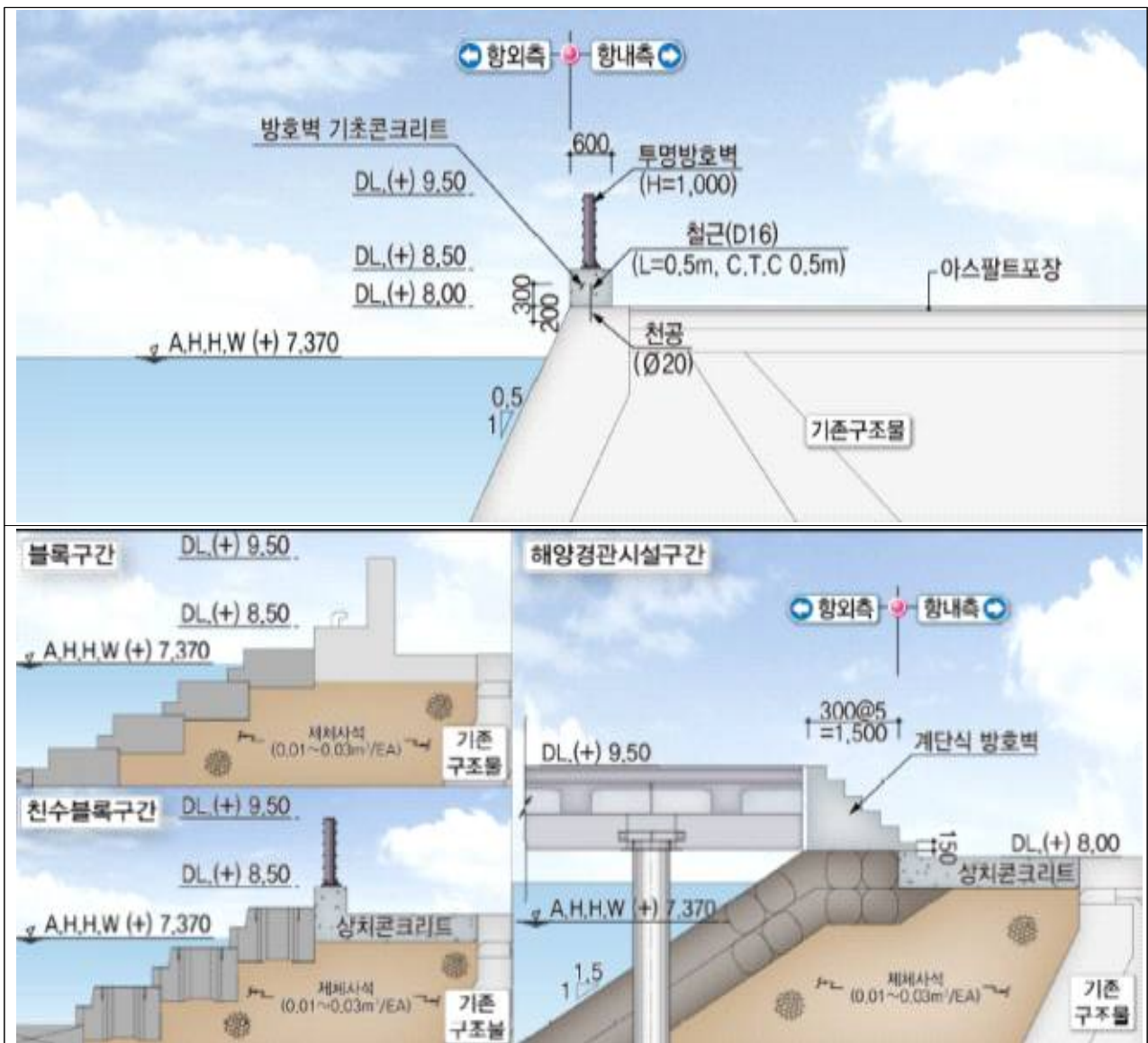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대형화되고 있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노후 항만 보강 및 생활SOC 확충으로 지역 주민 안전 도모
- (사업규모) 침수방시설 설치 1.5km(방호벽, 차수판, 방재언덕 등), 친수공원 조성 1식, 호안공 1식, 부대공 1식 등
- (총사업비/사업기간) 33,523백만원 / '21. ~ '25.

□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표준단면도



□ 재해방지 도입시설(예시)



□ 조감도

○ 친수공원(방재언덕)



※ 현황



○ 해양경관시설(잔교식)



※ 현황

